



MAGAZIN Vol. 05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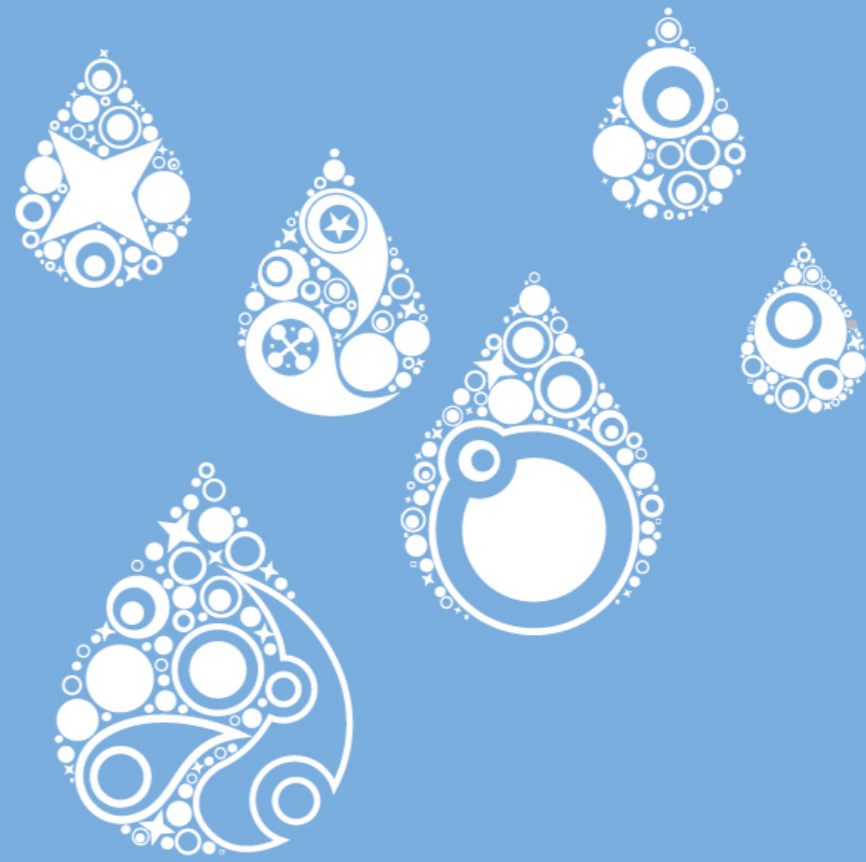
난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 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갓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
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5

CONTENTS

- 04 사진으로 보는 심리학과
- 06 심리상담교사에 대해
- 08 심리학과 학술제
- 10 임상심리 실험실을 소개합니다.
- 12 중독에 관하여
- 14 어학연수, 교환학생 인터뷰
- 16 Healing의 심리학 다섯 번째 이야기
- 18 심리학 가로세로퀴즈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다섯번째

2월 10일 새내기 OT & 대학원탐방

본격적인 과 행사의 시작이자 15학년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첫 행사였습니다. 새내기들이 대학원 실험실들을 찾아가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2월 11일 간다게임 & 수강신청

이 날은 간다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새내기들이 조별로 학교 건물 곳곳을 찾아가 선배들을 만나고 학교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캠퍼스를 달군 새내기들의 단결력이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2월 27일 학위수여식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2월 27 ~ 28일 가족MT

신나고 즐거운 첫 MT였습니다! 올해도 찾아간 송정 바닷가에서 야외활동을 했고 저녁엔 천하제일 요리대회를 했습니다. 새내기들의 여러 요리를 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새내기들의 요리솜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후에 실내게임을 하고 선배들과 함께하는 달빛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즐거운 뒤풀이를 했죠! 무사히 마무리 한 첫 MT였습니다. 다들 재밌었죠?

3월 28 ~ 29일 신입생 복학생 환영MT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님들까지 모인 커다란 행사였죠! 11학년 정연목, 13학년 정은주 두 MC의 깔끔한 진행과 15학년 새내기들의 깜짝 놀랄 공연들로 아주 성공적인 MT였습니다. 새내기들의 귀엽귀운한 공연들이 역대 최고였다고 하네요! 다시 한 번 열심히 준비한 15학년 새내기들 감사드리고 진행을 도와준 MC들, 학생회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3월 피닉스 사회대 축구리그

올해는 사회대 축구리그가 출범하여 축구 동아리 피닉스가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파이팅 넘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 여러분과 더더욱 파이팅 넘치는 응원단 여러분 다들 고생이 많습니대! 축구리그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다들 많은 응원바랍니다.



4월 9일 사회대 출범식

사회대 출범식에서는 파라오 회장과 클레오 파트라 부회장의 모습이 심리학과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사출을 통해 다른 학과와도 친해지고 심리학과도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2일 봄 산행

심리학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봄 산행! 맑은 날씨에 신나게 산타고 신나게 Oh리고기! 다들 금정산정도는 가봤죠? 가뿐히 산행을 마치고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3일 대동제 주막

전국주막자랑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올해 주막은 새내기들의 어마어마한 요리 실력이 빛난 행사였습니다. 안주는 역대 최고의 퀄리티였고 호응도 좋아서 밤까지 테이블이 팍팍 들어차있었네요! 고생해준 새내기 여러분 다들 수고 많았고 주막은 모두의 가슴 속에 빛나는 추억이 될 거예요...★

5월 23일 오픈캠퍼스

심리학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선배의 '심리학'과 '부산대 심리학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학원 실험실도 직접 방문해보는 행사였는데요, 대학원 선배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고등학생들의 열의가 불타는 행사였습니다. 대학원 선배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우와우와하던 귀요미 고등학생들을 심리학과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요!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교직이수에 대해

우리 심리학과에서도 교직이수를 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리학과에서는 교직이수를 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자는 매해 1학기 시작 전, 2학년이 되는 학생 중 학과 정원 10%이내의 수로 뽑습니다.

심리학과 교직이수자는 교직이론(선택) 6과목, 교직소양(필수) 3과목, 교육실습(필수) 2과목, 각각 2학점씩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지정한 교직이수 필수과목(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직심층평가 등의 기타 조건들을 충족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전문상담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임용고시를 통해 공립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명의 임용고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분인 09학번 김하민 선배님께서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13학번 장세영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09학번 김하민입니다. 학번으로 자기소개하는것이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저는 현재 경상남도 남해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에 실수도 많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발표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Wee센터는 Wee project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된 2차 safe-net입니다. Wee project는 단위학교 차원의 Wee 클래스를 1차 safe-net으로 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2차 safe-net인 Wee 센터, 도교육청 차원의 3차 safe-net인 Wee 스쿨로 다중 안전망을 구성하여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Wee센터는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우와! 저는 임용이 되면 학교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합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나요?

합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마인드컨트롤입니다. 임용이라는 큰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기 위해 마인드컨트롤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공부한 것은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자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교사생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처량함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그런 준비의 과정을 가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는 평균 몇 명을 모집하나요?

매년 모집하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국에 있는 중학교위주로 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수준 이라면 매년 100여명의 상담교사를 모집하는 것이지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과목을 응시하나요?

세영씨가 서두에 말했던 교직이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인 교육학은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사회, 교육행정 등 7과목입니다. 두 번째인 전공에서는 성격심리,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평가, 가족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특수아 상담 등 7과목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논술형 1개 문항이 출제되고, 전공에서는 단답식 10개 문항, 서술식 10개, 논술형 2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혹시 후배들을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듯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시험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관계없이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료정리, 목록설정, 우선순위 설정 등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합격자들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찾아보되, 그 내용들을 자신에게 맞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공공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배우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지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인간에 대한 이해, 정보처리 방법 등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혹자는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우기만 해도 훌륭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공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밖에도 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신 선, 후배님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요 ^^

교직을 이수하고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낀 것 중 하나가 심리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리학에서도 교직이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알더라도 교직이수의 조건을 미리준비하지 못해 어렵게 교직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다 될 수 있는 과정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것이 바로 교직이수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1학년 학생들과 교직이수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도들의 소통의 장!

심리학과 학술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심리학도라면 한번쯤은 참가해볼만한 '심리학술제'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결론까지 험난하지만 정말 뜻 깊은 경험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김예진 기자 yejin9409@naver.com

01 심리학술제의 탄생 배경

2012년 10월,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하였는데 많은 아이디어들 중 '심리학술제'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술제란 심리학과 학부생 및 복수전공생들이 2~5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심리학과 전공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갖춘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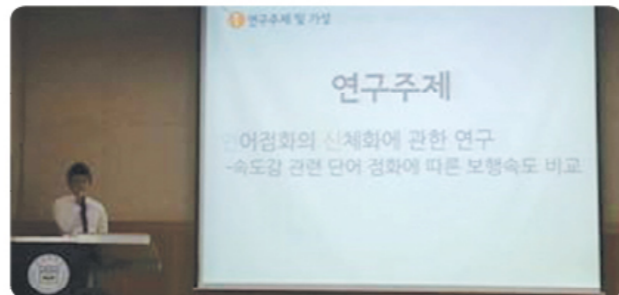
학술제를 통해 학과 내의 원활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수님, 대학원생, 학부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학술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까요?

02 우리들의 심리학술제 이야기

2013년 11월 22일, 제1회 심리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심리학과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총 6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속도감 관련 단어 점화에 따른 보행속도 변화 연구
- 집단의 소속감이 외모 수준에서의 내 집단 편애에 미치는 영향
- 정서차이에 따른 장면지각에서의 차이 연구
- 시각자극유형이 시간지각에 미치는 영향
- 심리상태에 따른 거리 지각
-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연구



학술제가 어떤 자리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1회 심리학술제에 참가하셨던 선배님들께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09학번 신종혁 선배 속도감 관련 단어 점화에 따른 보행속도 변화 연구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진학을 준비하던 시점이었는데, 학술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나중에 자소서에도 기재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술제에서 2등 우수로 입상하였고, 이 사항을 전공학습 충실도와 연관 지어서 법전원 자소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전원 1학년생입니다^^ 연구는 그 동안 축적한 심리학적 지식을 망라하는 과정입니다. 학술제는 학부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미흡점을 발견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우들과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협업 능력을 기르고, 소중한 추억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학술제는 여러분이 학부 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심리학적 지식을 뽐내고 미흡한 부분은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후배님들이 승부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차원에서는, 학술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수상경력이 학생들의 진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09학번 정민서 선배 심리상태에 따른 거리 지각



학술제 참여하기 1년쯤 전에 이동훈 교수님의 지각심리학 수업 팀 프로젝트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피로도에 따른 거리 지각에 대해서 한 실험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실험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다른 실험을 짜서 학술제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술제는 긴장 됐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많이 참여해보았으면 합니다.

학술제라고 해서 완전히 학구적인 분위기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께서 재미있게 진행해주셔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후배님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합니다.

학술제는 심리학과 학생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해서 노는 것도 재미이지만, 학술제에서는 배운 것을 직접 써먹을 수 있고 부상으로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교수님들과 더불어 심리학에서도 관심분야가 비슷한 학우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심리학술제 참가! 어떻게 하나요?

심리학술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약 한 달 전부터 주제를 공모받습니다. 공모주제는 심리학과 전공과 관련된 경험적 Data를 갖춘 연구입니다. 참가대상은 심리학과 학부생이나 복수전공생 2~5명으로 구성된 1팀이 되어 발표하면 됩니다. 학술제가 공지되면 주제와 팀원을 정해서 학과사무실로 응모해 주세요. 주로 3학년 연구방법론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학술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꼭 연구방법론 수강생이 아니어도 심리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1, 2학년들도 참가 가능합니다. 선배들과 함께 심리학에 대해 스스로 연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유와 성장의 씨앗, 임상심리실험실입니다.

안유빈 기자 up0521@naver.com

사회관 5층 505호 안이 궁금하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저희 임상심리 실험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짹짹 먼저 임상심리학이란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치료(예방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울, 불안, 적응문제, 중독, 정신분열, 섭식장애, 주의력 결핍, 자폐, 학습장애, 성격장애 그리고 두통과 같은 심리 생리적 문제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의 석사 과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3학년 노해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외상과 적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역경을 겪게 되는데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적응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잘 적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관심이 있는데요. '적응'을 넘어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요인에 대한 발견과 연구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실제 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인들로 하여금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도록 알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임상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위해선 꼭 임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관심이 외상에 노출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증상, 회복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학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제가 봐 왔는데 그 분들의 전공이 주로 임상 심리라는 것을 알고는 진로를 굳힌 것 같아요.

임상심리를 전공하고자 준비하는 학생들을 향한 한마디?

임상심리학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학문인거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아픈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호기심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 생각해요. 물론 입학할 때 학부 성적, 영어실력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13학년 박승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있는 관심 있는 분야는 자살예방입니다. 1위 자살국가라는 불명예적인 타이틀이 붙을 만큼 국내에서의 자살 현황이 심각하지요.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적 훈련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임상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임상심리학의 별명이 '진리와 선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인간 마음의 원리, 즉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 그것을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살 사건과 비인간적 행태들이 날로 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아픈 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란 이 공부야 아닐까. 사람에게 대해 배운 것을 사람을 위해 쓰고, 개인차와 보편적 원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장 멋진 학문이라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5학년 강현주

어떻게 임상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학부시절 심리학은 배우면 배우수록 '다채롭고 다양하고 폭넓다.'라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심리와 심리 치료, 평가를 배우며 그 폭넓음에서 손으로 잡히는 듯 한 느낌에 매료되어 임상심리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심층적이고 넓은 심리를 파악하고 또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을 전공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대한 목표에 한걸음을 떼는데 많은 지식과 노력,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은 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 공부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한걸음씩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과 희망은 임상심리학 공부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제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을 들으시는 학우 분들이 홍창희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뉴로하모니에 대해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임상심리학실에서만 가지고 있는 뉴로하모니NeuroHarmony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뇌파를 보면서 스스로 훈련하는 휴대용 뉴로피드백 두뇌훈련 시스템으로 뉴로하모니는 세계 최첨단 기술수준으로 그 효과는 이미 미국심리학회(APA), 세계스포츠심리학회(ISSP), 미국스포츠심리학회(AAASP), 응용생리심리학 및 바이오피드백학회(AAPB) 등에 논문 발표와 제품 전시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부속기관인 효원심리센터에서 감각훈련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DHD, 지적장애, 파울림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다음의 화면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앉아 손가락 구부리기, 컵 만들기, 활 쏘기, 행성 기억하기, 조각맞추기 등의 게임을 뇌파로 실시하게 됩니다. 보다 필요한 뇌파를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합니다.

뉴로하모니의 주요 효과에 대해 보실까요

건강 🏃 • 스트레스 해소 • 감정조절 : 조울증, 불안, 긴장, 대인공포, 화병해소 • 통증의 자기조절 : 만성 두통 및 편두통, 생리통 • 수면장애, 자폐증, ADHD 개선	학습 & 업무 📖 •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향상 • 수리력, 논리력, 분석력 향상 • 공간지각력 증진 • 좌, 우뇌의 균형 발전 • 지능지수 향상 • 학습장애 개선 및 업무능력 향상	스포츠 🏆 • 경기력 향상 • 긴장 이완 • 경기 집중력 향상 • 주의력 향상 • 자기 조절력 증강	명상 🧘 • 수행능력 향상 • 초각성 경험 • 심신의 평화로운 조화 • 객관적 자아 발견
---	---	---	--

• 표는 뉴로하모니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www.neuro21.co.kr/>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이상 임상심리 실험실의 안유빈이었습니다.

나도 혹시 Nomophobia? Smart 폰, Smart 하게!

이현두 기자 zseungjunz@naver.com

지금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혹시 한 손에는 스마트 폰이 쥐어져 있고, 귀에는 그 스마트 폰과 연결된 이어폰이 꽂혀져 있으며, 눈은 폰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마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작은 액정 속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스마트 폰은 이름 그대로 '스마트'한 문명의 이기(利器)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만큼 쉽게 빠져들고 헤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스마트 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포머족(Meformer: Me+Informer)의 결합어, 나를 자꾸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SNS 피로 증후군', '디지털 치매(디지털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 '스마트 아일랜드(스마트 기기 안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스마트 폰이 만드는 섬에 고립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노모포비아' 등의 신조어까지도 생겨났다고 해요.

특히, 그중에서 Nomophobia는 '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로 스마트 폰 등 휴대전화기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스마트 폰에 중독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팀은 노모포비아의 정도 즉, 자신의 스마트 폰 중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고 해요. 아래의 표는 이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지예요. 여러분들도 20개의 질문들로 중독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항	
1 스마트 폰으로 '정보'와 계속 접속하지 못하면 불안함을 느낀다.	11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나와 연락을 못해 우려될 것 같다.
2 스마트 폰으로 '정보'를 보고 싶는데 볼 수 없다면 짜증 난다.	12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경질 날 것 같다.
3 스마트 폰으로 뉴스나 날씨 등을 볼 수 없다면 신경질난다.	13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와 계속 연락 할 수 없어 걱정될 것 같다.
4 스마트 폰을 쓰고 싶는데 사용할 수 없다면 짜증난다.	14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누군가 나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이를 알 수 없어 신경질 날 것 같다.
5 스마트 폰 배터리가 바닥나는 것이 두렵다.	15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와 지속적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 된다.
6 월 데이터 사용량이 넘어가는 것이 두렵다.	16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나의 온라인 정체성과 단절될 것 같아 불안하다.
7 데이터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없다면 계속 찾으려 다닌다.	17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각종 SNS와 온라인 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불편하다.
8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에선가 고립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8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온라인 상의 알림 등 각종 업데이트를 체크하지 못해 불편하고 곤란하다.
9 한동안 스마트 폰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보고 싶은 욕망이 느껴진다.	19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이메일 메시지를 확인 하지 못해 걱정 된다.
10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실시간으로 가족과 친구와 소통 못해 걱정될 것 같다.	20 나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다.

점수_ 전혀 그렇지 않다 1 | 약간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약간 그렇다 6 | 매우 그렇다 7

여러분들의 중독 점수는 몇 점인가요? 해당 질문에 응답 점수가 20-60점이라면 당신은 가벼운 노모포비아, 60-100점은 보통 수준의 노모포비아, 100점 이상이면 심각한 노모포비아라고 자가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 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 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째, 출퇴근 시간, 스마트폰과 멀어주세요.

직장인, 대학생들이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바로 출퇴근 시간일 텐데, 이 자투리시간 SNS, TV감상 등의 시간 소모보다 스마트 폰을 내려놓고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어공부도 괜찮고, 독서나 명상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쯤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아요.

'디지털 디톡스'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잠시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휴일제와 같이 하루정도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내려놓는 자기 스스로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배터리를 적게 충전시켜 다니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꽉 채워 다니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적게 충전시켜 다니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자기개발 시간을 가져요. 관심을 전환하여 운동, 음악 감상, 여행 등 밖으로나 기분전환을 자주 실시하고 색다른 취미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폰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한 스마트 폰 사용을 위해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유용하지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건강한 습관을 길러 스마트한 사용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만 깔아주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20개 내외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굳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치매 초기 증상인 디지털 치매 증상이 시작될 수도있다고 하네요. 간단한 메모라도 손을 사용해 적어나간다면 뇌에 자극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은 청소년 사용자들의 중독을 막기 위해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매일 기록해주고 사용시간을 제한해 사이렌을 울려 경각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드림이(DRIM) 자녀용/부모용, 모먼트(moment), MOMO, 넌 얼마나 쓰니?, 스마트보안관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김은하 기자 sea5585@naver.com

대학생들의 로망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한 새내기들을 위해 준비한 특집 심리학도들의 글로벌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13학년 손해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집을 맡은 14학년 김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3학년 손해주입니다. ^^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1학년 때는 한일해협권칼리지 참여했고 2학년 때는 오사카대학교 어학연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번 3학년 2학기는 오사카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은 처음 들어보네요!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와 규슈대학교가 함께 실시하는 1학년 대상 2주프로그램이었어요. 부산대학교 학생 50명과 규슈대학교 학생 100명이 1주일만은 부산대학교에서, 나머지 1주일만은 규슈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사카대학교 어학연수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오사카대학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3주간, 오사카대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은 1학년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원서와 영어면접, 일본어 면접, 자격증을 통해 선발했어요. 저는 일본어 관련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서를 정말 열심히 작성했고 특히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해 준비했어요. 면접 때 떨지 않고 차분히 말했던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오사카 어학연수는 JLPT(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부전공자 대상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과 달리 학점과 지원서를 통한 선발이 이루어졌구요. 저는 꾸준한 학점관리와 JLPT(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지원서를 작성 할 때 그 대학이 소재해 있는 지역을 자세히 조사해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과정 중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 도중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프로그램 도중 아프니까 원활한 참여가 어려웠어요.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언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영어권이 아닌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꾸준한 영어 공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른 조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의 경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오사카대학의 어학연수의 경우 조별과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다른 언어로 조별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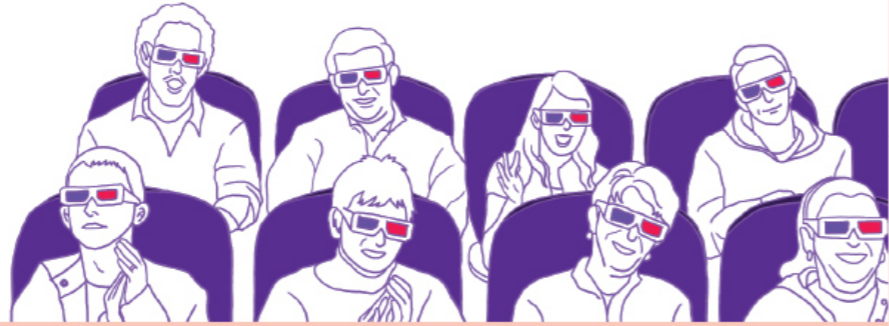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선배처럼 교류,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설마 내가 되겠어.'와 같은 생각으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해외교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도전하세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대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승민 기자 lesengmin@naver.com

힐링의 심리학 연재에 이어 여기서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심리학을 찾아볼 수 있는 3가지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외로 우리 삶에 관한 주제로 만드는 영화에는 많은 심리학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_ EBS 영화로 보는 심리학



01 미쓰 흥당무 (2008년 개봉, 코미디)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미쓰 흥당무입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안면 홍조증에 걸린 여선생님이 주인공이죠.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이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못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며 주변의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세상의 여러 요소들과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행동은 그녀의 존재감마저 희미하게 하죠.

더욱이 그녀는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성형까지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하자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는 심리학적 요소는 바로 '관계사고'입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 현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나타난다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자신과 주변의 것들을 모두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그녀는 자신과 유사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학생과 만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가 가진 상처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녀의 문제 행동과 극복 과정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02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2010년 개봉, 드라마 / 멜로 / 로맨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화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로 제목이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이 영화의 여 주인공 리즈는 첫 등장부터 부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은 가정적이고 잘생긴 남편과 결혼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이 원하던 인생인가를 고민하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이 영화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린 영화로, 영화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요소는 '만족 불감증'입니다. 이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만족을 느끼는 현상으로, 타인과의 비교나 애정결핍, 강한 성취욕을 추구하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리즈는 여행을 떠나 자신의 진정한 인생에 대해 탐색하게 되는데, 첫 여행지 이탈리아에서는 언어를 하나씩 배우가는 즐거움, 친구를 만드는 관계의 즐거움을 깨닫고 인도에서는 명상을 배우며 마음을 다스리며 자아를 찾는 방법 등을 배우기도 하죠. 이 영화는 겉으로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이 여러 나라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리즈의 모습을 담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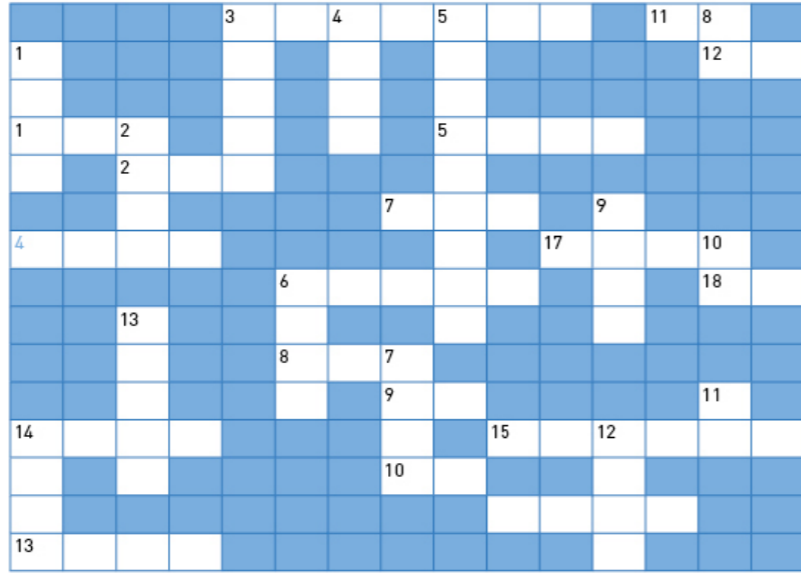


03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998년 개봉, 코미디 / 드라마)

이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의 주인공인 멜빈의 행동 특성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보도블럭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으려 뒤뚱거리며 걷고 식당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강박증'의 증상을 떠올리게 하죠. 강박장애란 불안장애에 속하는 장애로,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은 손을 자주 씻거나 숫자를 세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박적 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 같은 증상을 가진 다소 신경질적인 주인공이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자신이 보이는 특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임상이나 상담 심리에서 배웠던 강박증의 특징을 이 영화를 통해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란한 영화 포스터와 영화의 즐거리와 흥미 속에 가려진 3가지의 영화 속 심리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봤던 영화라 하더라도 심리학적 요소를 알고 다시 본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부 수업을 통해 배운 여러 심리학을 또 다른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리학 가로 세로 QUIZ



가로열쇠

1.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2.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
3.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교양수업의 이름.
4.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
5. ○○○○검사. 종이 위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종이를 반으로 접어 생긴 모양 10매를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연상시키는 검사.
6.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두뇌의 정보수집, 조직, 기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
7. 인간의 정신 구조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정신의 내용 혹은 상태.
8.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거나 시도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9. 일정한 훈련에 의해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10.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총칭.
11.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
12.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식.
13.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 자각활동.
14. 프로이트에 의한 신경증의 치료법과 그 심리학적 이론체계.
15. 1940년대 칼 로저스가 발전시킨 심리 치료방법.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치료자가 내담자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
16. 대뇌피질은 투사영역과 ○○○○으로 나누는데, ○○○○은(는) 감각의 추가적인 정보처리, 운동계획, 사고(전전두 피질)등을 담당한다.
17. 경험한 것을 수초 동안만 의식 속에 유지해 두는 작용.
18.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임묵 중에 다수 의견에 맞추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세로열쇠

1. 사회심리 현상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2. 특정 과제를 학습하려는 추진력.
3. 우리의 신념 간에 또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에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생기는 것.
4. J.B. 왓슨이 주장한 심리학의 대상을 의식(意識)에 두지 않고, 사람 및 동물의 객관적 행동에 두는 입장.
5.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1학년 전공필수과목.
6.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
7. 리비도를 일컫는 말.
8. 생리적으로 각종 신경이 활동중인 상태.
9. 용량에 제한이 없고 정보가 몇 분에서부터 평생 동안 보존되는 기억.
10. 방어기제의 하나로 의식에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념·사고·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넣으려는 마음의 작용.
11. 일반적으로 어떤 작용요인이 생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한계.
12. Septal area. 대뇌변연계의 한 부위.
13. 독일의 심리학자. 심리학 연구에서 실험실을 설치하여 심리현상의 실험적 연구를 하고, 실험심리학을 주창했다.
14. 자극의 출현이 예상되는 출처로 주의를 옮기는 것.

가로 세로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해 주세요!

2015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본 행사 이외에도 추가되는 학과행사나 일정들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6월 농활
- 9월 개강총회
가을산행, 문창제
- 10월 대학원생 연구발표회
- 11월 심리학과 학술제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5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스토리를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MAGAZIN Vol. 05

포시제 Story

발행일 2015. 6. 10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